

새로운 시대 교육운동과 참교육 실천 활동

권재원(참교육연구소)

I. 새로운 시대, 새로운 노동

1. 정보화와 낡은 생산관계(조직)의 모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상부구조에 결정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는 생산수단의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였다. 바로 정보통신 혁명, 추상적이었던 지식과 정보가 그 자체 부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변화가 그것이다. 당연히 이런 생산력의 변화는 생산관계를 바꿀 것이고, 상부구조인 교육에도 엄청난 변화를 던져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 변화는 낡은 생산관계, 낡은 상부구조와 모순을 일으킬 것이고, 이 모순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으로 현상할 것이다. 누가 이 고통의 목소리를 잡아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의 결정적 동력이 될 것이다.¹⁾

그런데 한국의 진보진영은 이 기본을 잊고 있었고, 이 변화로 인한 고통의 지점을 잡아내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자본이 한 발 앞섰다. 이들은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국가자본주의를 새로운 생산력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생산관계로 공격하면서, 고통의 지점으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창의적인 노동자와 그를 얽어매는 각종 관료제적 규제와 통제, 획일화를 잡아내었다. 이 흐름을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네그리는 보다 폭넓게 제국이라고도 부른다.

반면 진보진영은 케인즈국가(앙시앵 레짐)의 옹호자로 나서면서 오히려 진보성을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가 낡은 생산관계의 파열구인 비대해진 공공영역의 비효율과 사회전반을 움죄는 답답한 관료제를 공격할 때, 진보진영은 오히려 각종 규제와 관료제, 국민국가를 옹호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진보에 대한 재앙에 가까운 지지율과 영향력을 조중동의 농간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옳건 그르건 간에 신자유주의는 21세기의 모순점을 두드렸다. 진보진영은 거기에 구시대적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격점에 대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야 하며, 획일성과 최악의 관료제를 해소시킬 진정한 힘이 왼쪽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즉 운동의 주체성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것 역시 자본이 더 빨랐다. 드러커는 “산업 프롤레타리아는 사라지고 이제는 지식노동자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한다.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 치열하게 대

1) 마르크스는 결코 최초의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바로 그 고통의 접점이 공장임을 찾아냈기 때문에 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이다.

립하던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모습은 점차 소수의 지식노동자와 다수의 분산적인 맥잡으로 대체되고 있다. 전통적 진보진영의 세력기반인 산업노동조합들은 그 재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드러커나 벨의 주장처럼 정말 노동자들은 사라지고 자유로운 지식 소생산자들의 세계가 온 것인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공장 밖으로 나갔을 뿐이다.

2. 비물질 노동의 시대

중세에는 농업이, 근대에는 산업이 중심이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무엇이 생산의 중심인가? 흔히 지식·정보 산업,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한다. 혹은 정신노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근대의 용어다. 산업혁명 이후의 농업이 농업이라기 보다 식량산업이듯, 정보혁명 이후의 산업은 설사 육체노동이라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그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비물질 노동이다.

비물질 노동은 지식·정보노동, 상징노동, 그리고 정동(情動)노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식·정보는 오늘날 그 자체 생산물이며 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상징노동의 위상도 매우 중요해지며 그 자체 가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은 지식·정보 기계의 발달과 함께 사라지고 축소된다. 오늘날 가장 인간적인 노동으로 남는 것이 바로 정서노동이다. 과거에는 정서가 매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정서 그 자체가 상품이다. 여기에는 감정노동,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그리고 care노동 등이 포괄된다. 심지어 물질을 생산하는 노동조차 궁극적으로는 정동이다. 오늘날 지식·정보·정동을 생산하지 않는 그야말로 물질노동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점점 주변화, 최소화되고 있다. 물질은 기계가 다루고 인간은 지식과 정동을 다룬다.

3. 대중노동자 시대에서 사회적 노동자 시대로

노동의 성격이 바뀌면, 공장도 바뀌고 노동자도 바뀐다. 산업시대 노동자는 생산수단인 대규모 공장에 매여 있었다. 거대 집산 시스템인 포드주의는 자본이 노동조합을 매개로 대규모의 노동자들을 적절히 달래면서 공생할 수 있었던 안정의 도구였다. 그러나 가상 공간을 통해 거래되는 새로운 부의 원천인 지식·정보·정동은 과거의 공장, 유통수단을 비웃으며 사회 곳곳으로 산개하여 네트워크의 노드 속으로 파고들었다.

노동자 역시 허물어진 공장의 벽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산개했다. 문제는 생산수단이 발달할수록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산 노동의 양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산수단은 인간 노동력을 극단적으로 감축시켰다. 소수의 지식노동자들만 이 새로운 생산수단과 결합한다. 이들은 높은 대우를 받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몰아낼 새로운 기술의 토대를 닦는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 비물질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분야에 투입된다. 먹이고, 일상생활을 돕고(주부, 각종 맥잡), 미래의 지식노동자들을 양성하고(특목고, 자사고), 나머지를 훈육하는(나머지 학교). 그리고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공장과 공장외부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공장 밖에 있음이 실업자가 될 수 없다. 노동자라는 의미가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제공하는 피착취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공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네트워크의 어떤 노드에 접속하는 순간 노동자다. 무심결에 접속한 홈페이지의 댓글 하나도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노동자를 사회적 노동자라고 한다. 노동의 역사는 전문노동자-대중노동자의 시대를 지나 사회적 노동자의 시대로 왔다.

II. 새로운 고통

1. 비명소리 1-생산수단이 된 지식

자본주의는 항상 교환될 수 없는 것, 측정될 수 없는 것을 화폐로 측정함으로써 모순을 만든다. 이번에는 지식과 정동이다. 애초에 한 노동자의 신체에서 노동력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측정했던 모순, 한 상품에서 사용가치와 추상적 교환가치를 분리한 모순. 이번에는 본질상 누적되고 대화, 상호비판과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지식과 정동을 생산수단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생산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로 계산될 수 있어야 하며, 화폐로 계산되려면 이는 표준화 되어야 한다. 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고정된 사물이 되어야 한다.

사유하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지식은 고정되고 사물화 되고 표준화된 즉 이미 확정된 정보로 간주된다. 정보에는 과정이 없다. 오직 쓸모 있는 정보, 낡은 정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쓸 수 있는 정보는 화폐를 받고 팔리며, 지금 쓸 수 없는 정보는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이는 기존의 지식인들에게 당장의 효용을 입증하라는 무시무시한 압력으로 다가간다. 당장의 쓸모를 내어놓지 못하는 지식은 모두 폐기된다.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기타 인류 수천 년의 누적된 지식도 당장의 쓸모를 내어놓지 못하는 한 새로운 라면 끓이는 방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여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화폐로 계산되는 것을 거부하는 지식이, 커뮤니케이션을 갈구하며 정보가 되기를 거부하는 지식의 비명이 들린다. 이 비명소리가 잦아드는 날 우리는 소수의 지식관리자, 새로운 지배계급들이 완결된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처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바보가 될 것이다.

2. 비명소리 2- 체계에 의한 교육의 식민화

이제 자본은 자본가의 통제에서도 벗어났다. 하버마스의 표현대로 화폐를 매개로 하는 하부체계가 자립하여 그 자체 낫선 것으로 인간과 대립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하나 정복하고 있다.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처음에는 권력매체의 체계인 관료제가 주도하였으나, 이제 그 식민지를 시장이 접수하고 있다. 관료제의 식민지일 경우는 고분고분 통제만 받아들이면 그만이었으나(복지부동), 시장의 식민지가 되면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을 달려야 한다. 증식이냐 파산이냐?

신용의 확장을 통해, 즉 존재하지 않는 가치, 당겨 쓴 미래의 자본 증식분에 의해 유지되었던 케인즈 국가의 자본과 실물의 괴리는 이제 손쓰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²⁾ 이것을 돌파하려는 자본의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본의 축소, 즉 거품 제거, 구조조정이다. 이는 실물과 자본의 괴리분 중 민중들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치출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물의 증가, 즉 생산성 혁신이다. 하지만 생산력의 확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온 세계를 몇 바퀴를 돌아가며 열키고 설킨 초국적 자본들은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의 식민지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방법을 찾아내었으니, 그것은 그 동안 ‘실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던 것들을 ‘실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제 과거에는 ‘실물’ 즉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들, 실물경제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영역이 시장화된다. 고상하게 말해서 ‘내부 식민지’가 형성된 것이다. 철학이 상품이 된다. 심리학이 상품이 된다. 교수들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예술가들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이렇게 자본은 실물의 범위를 넓히고 잠시 숨통을 틔운다. 하지만 확장을 중단하는 자본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다. 자본은 이미 가득 찬 지구에서 쥐어짤 수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 ‘실물경제’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자본은 지난 3년간 문화예술계를 완전히 정복하여 잉여가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었다. 현재 우리나라 음반시장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음악은 한낱 휴대폰 신호음과 등치될 수 있는 ‘음원’으로 바뀌고 말았다. 출판, 공연을 지배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 MBA출신의 소위 ‘기획자’들이다. 이들은 “공연을 판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그 자신 좋은 공연을 가려낼 수 있는 심미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술가들을 부러먹으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제 자본은 예술계보다 더 덩어리도 크고 기호품이 아니라 생필품으로 만들 수 있어 “실물경제”에 포함시킬 수만 있다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였다. 이는 마치 영국이 인도를 발견한 것과 같은데, 바로 ‘교육’이다. 항상 식민지 침략은 상대의 낯은 모순을 해체하며 밀려온다.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청나라와의 조공관계를 해체해야 했듯이 자본은 교육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교육을 식민지로 삼아 조공을 받던 관료제와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급진적인듯 하면서 뭔가 수상한 각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정체다.

당연히 교육의 영역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명소리를 잘 가려 들어야 한다. 그 중에는 관료제의 앞잡이들이 지르는 비명소리도 섞여있기 때문

2) 자본론 3권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버블이 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미완성의 난삽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다. 자칫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무조건 들고 나선다면 낮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지켜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운동세력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왔다. 전교조는 관료제가 먹어야 할 욕을 대신 들어먹었다. 신자유주의가 전교조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전교조가 무력해지면 나머지 관료제 세력쯤은 일거에 탕진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교조의 치욕이다.

사실 자본은 이미 교육을 “실물경제”로 편입시키는데 성공했다. 융성하는 사교육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미 자본은 사교육 기관과 공교육 기관의 질적인 차이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학교와 학원은 질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이 아니다. 강제로 다니고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일 뿐, 이들은 모두 교육기관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려면 당연히 이를 통해 전수되거나 구성되는 지식은 ‘정보’가 되어야 한다. 교실은 ‘지식’이 구성되고 이것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안 된다. 당장 쓸모있는 정보가 일정한 값을 받고 판매되는 매대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들의 최종 목표이며, 제공되는 정보, 문제풀이를 판매할 수 있다면, 더우기 이것을 공교육의 이름으로 국가가 대신 지불해 준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실물경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상이야 어떻든 간에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교사들의 존재다. 방적기와 같은 작업기계가 등장하면서 장인들의 숙련이 분쇄되듯이,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의 정보화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무력화 할 것이다. 표준화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수의 교육 전문가만 있으면³⁾, 나머지는 인성에 큰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작업만 남을 것이다. 교사는 제거된다.

지금 그 토대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입시교육’은 무엇인가? 목표와 결과가 이미 결정된 교육이다. 모든 지식은 단 하나의 척도, 즉 ‘시험문제’에 나오는가로만 평가된다. 지식은 구성되지도 토론되지도 않는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며 학생들은 이것을 외우거나 훈련한다. 이것이 이미 지난 수십년간 일선 학교에서 자행되어왔던 ‘교육’의 모습이다. 입시학원은 이것이 노골화된 표현에 불과하다. 대입 기출문제와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예상문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리고 아무리 멍청한 학생이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면 더 이상 지식인 교사는 필요없다. 하물며 그 동안 지식인 노릇마저도 해 오지 않았던 교사들이 아닌가?

위기가 닥쳐서야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교사의 외침에 대한 싸늘한 반응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동안 상품처럼 교육해왔으면서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라는 반응에 다름 아니다. 이미 학교는 그 토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누가 마지막으로 그 목에 방울을 거느냐, 그거 하나 남았다.

3) 이들마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해고될 것이다.

3. 비명소리 3- 그 자체 착취의 대상이자 시장이 된 아이들

더 이상 계급 재생산 교육 따위는 운운하지 말자. 자본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훈련된 노동자계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수의 비물질 노동자와 잉여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이다. 가망없는 학력 경쟁에 내던져진 한국의 아이들은 그 자체 자본의 투기장이며 착취대상이다. 자본은 이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가 되기도 전에 그들의 부모 주머니를 털어먹을 착취의 소재로 삼는다. 정작 노동자가 될 나이가 되면 기진맥진해 버리는 이 아이들. 그러나 그 동안 충분히 알량한 학교의 껍질만 남겨놓고 시장화된 교육에서 충분히 잉여가치를 실현한 다음이기 때문에 자본이 신경쓸 바 아니다. 그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부모가 두배 세배 더 노동을 강제받으니 일석이조다. 각종 게임 산업, 식품 산업, 대중문화 산업은 온갖 생체실험을 가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실현한다.

가망 없는 학력경쟁에 시달리며 학대에 가까운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온갖 쓰레기 문화와 쓰레기 음식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아이들. 자기 아이들을 그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오히려 미래의 신분상승을 꿈꾸며 무의미한 초과노동에 뛰어드는 부모들. 이제는 노동자 계급 재생산교육 조차 사치가 되고 말았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저 막연한 미래에 자신의 신체까지 내걸어야 하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노동력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전자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재생산의 필요가 사라진 자본에게 공교육은 너무 비싸다. 구조조정 칼날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구조조정이 수월성 교육으로 집중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지식노동자는 스스로를 탈숙련화 시키면서 자기 종족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듯, 각종 수월성 교육기관도 점점 보통학교화 되면서 극소수만 남게 되는 죽음의 행렬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비명소리는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여유 있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서도 처절하게 들려올 것이다.

하버마스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을 거론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체계’가 모든 것을 식민화 하고 있다고 절규한 의미를, 네그리가 제국의 무장소성을 수 없이 반복한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이제는 자본가들조차 무엇이 이 죽음의 행렬을 이끌고 있는지 모른다. 그저 알 수 없는 저 체계인 것이다. 이것이 국경을 넘어선 자본이다. 지금은 몇몇 소위 전문경영자들이 자본의 운전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탈숙련화 될 것이다. 제국은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삶 권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네트워크가 되어 분산되었다.

III. 새로운 희망- 재전유 그리고 창조

1. 창조적인 힘과 비물질 노동자

너무 절망적인 전망에 맥이 빠질수도 있다. 실제로 아도르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고발하고는 스스로 맥이 빠져버렸다. 그는 변혁의 가능성은 포기하고, 단지 실존의 차원에서 저항을 주장했다. 저 심연이라는 이름의 호화호텔. 하버마스는 담론투쟁을 통해 저 체계의 식민화를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이 생긴다. 하지만 식민화를 저지할 뿐 이미 식민지가 된 영역을 살릴 수는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단지 저지가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노동자 자체를 소멸시키는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 그 잠재력이란 생산수단을 오히려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산업시대, 자본가의 대규모 생산수단, 집적된 자동화 공장에는 아무도 감히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21세기의 비물질 노동자는 지식·정보·정서 능력을 오롯이 가진 존재다. 수백억 달러의 자본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름 없는 리눅스 전사들에게 무려 30%의 시장을 내 줄 수 밖에 없고, 지금 필자의 컴퓨터를 포함한 무수한 컴퓨터가 불법복제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제는 불가능하다. 이미 지식·정보가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인 한, 그것을 화석화 시키는 것은 자멸임을 자본도 알고 있다. 지식·정보는 흘러야 한다. 단 자본에게 잉여가치를 안겨주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하지만 강제로 흐르게 하면 더 이상 지식이 아니게 된다. 창조성을 살려 두면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그토록 무시무시해 보이던 신자유주의의 파열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신자유주의도 어쨌든 '자유'주의인 것이며, '자유'인 한 자신들의 무덤을 팔 존재들의 압살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무기를 휘두르는 처지도 아니다.

저들의 무기는 웬만한 지식노동자는 거의 동등하게 갖출 수 있는 무기다. 대학 중퇴생 세 명이 거대한 IBM을 거꾸러뜨렸듯이... 수백억의 연소득을 올리는 CEO⁴⁾가 내세우는 무기는 어느 사회교사, 어느 대학원생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다. 특히 이는 오늘날 가장 큰 이윤을 창출하는 정동노동에서 두드러지는 파라독스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정동 노동자가 무슨 긍정적인 정동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무엇보다 때문에 자본가에게 이윤을 제공하겠는가?

이렇게 오늘날 정보혁명은 그 어느 시절보다도 창조적이고 자본과 근접한 능력을 갖춘, 그리고 원칙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노동자들을 산출하였다. 다만 그들이 자본과 적대하지 않고 포섭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식을 식민화하는 체계의 힘은 그 포섭을 무효로 돌리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2. 재전유, 물꼬 돌리기

비물질 노동자의 저항은 단순하다. 그것은 재전유와 물꼬 돌리기다. 재전유는 자

4) 자본가인 주주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

본의 이윤을 위해 갖춰진 정보통신 인프라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애초에 군사기술로 개발된 인터넷을 오늘날 전혀 비군사적 용도로 바꾸어버린 네티즌의 힘을 생각해 보라. 물꼬 돌리기는 잉여가치 창출의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흐름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취약한 지점에 접속하여 치명적인 문제제기나 파열구를 던지고 이를 통해 논의를 이끌고 흐름을 돌리는 것이다. 구태여 저항하고 투쟁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하는 것이다. "Just Do It!"

3. 무차별 식민화, 탈 중심화 된 투쟁들

시장체계는 무차별적으로 문화전승의 영역들을, 심지어는 같은 체계에 속한 관료제의 영역들까지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 이는 얼핏 자본의 힘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자신의 모순도 사회 전역에 흩뿌려 놓는 것이다. 자본은 이제 네트워크로 흩어졌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윤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 댓가로 사회의 모든 영역이 겨누는 칼 끝에 자신의 심장을 내어 놓아야 한다.

분명 자본은 정보화를 통해 공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계급과의 갈등을 부차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여전히 공장에서 계급 갈등은 일어나지만 이제 이 갈등은 한 갈등일 뿐이다. 후쿠야마의 무리는 "마침내 계급투쟁이 사라졌다."며 때 이른 삼페인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 투쟁을 전 사회로 분산시킨 것이다. 오늘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겨누지 않았던 이런 저런 운동과 갈등들이 일제히 그 심장부와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자본에게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노동자 계급만 상대할 때가 더 편리했다. 적절히 공생하는 노동조합은 그들의 벗이었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조차 동원하지 못하는 낡은 체제가 되었다.

자본의 수심이 깊어진다. 어찌할 것인가?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저 투쟁들을 어찌 관리할 것인가? 하지만 다중의 즐거움은 높아간다. 어찌할 테냐?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의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할 것인데, 절대 관리되지 않을 것이다. 전선은 분산되고 근본모순은 사라졌다. 이제 체계의 작은 파열구만 보이면 상처를 깊게 만드는 예측불허의 투쟁과 온갖 종류의 전투기계들이 명멸할 뿐이다. 특정 계급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심적인 인민이 아니라 다중이 등장한 것이다.

IV. 교사운동의 새로운 위상과 참교육 운동

1. 핵심적인 비물질 노동자로서 교사

교사는 적어도 사전적 정의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식 노동자다.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거의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던 존재였다. 한국 교사들은 그 존엄성과 위엄을 스스로 걸어 차 버렸지만, 한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훨씬 낮은(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권위는 교사의 거의 유일한 무기다. 게다가 교사는 감정과 관계를 취급하는 정동노동자다. 지식노동자는 정보화에 따라 탈숙련화, 대체 가능하지만 정동노동자는, 더구나 성장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정동노동자는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 지식과 정동 모두를 고도로 다루어야 하는 교사는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훈장에서 전형적인 비물질 노동자로, 혹은 최후까지 생존할 비물질 노동자로 변신하였다.

위상이 높아지면 책임도 높아진다. 교사는 무시로 밀려오는 체계의 지식영역 식민화 시도에 저항하는 첨병의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식의 생산자로 일어서야 하며, 적어도 그들 중에서 지식의 생산자, 유기적 지식인을 형성시켜야 한다. 체계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지식의 패키지를 거부하고, 경험 속에서 수정되고 성장하는 참된 지식을 가르치고 생산해야 한다. 각 교과 교사들은 자발적인 학문공동체를 이루어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을 생산하고 동시에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도 생산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해 강요되는 획일적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비판하고 그들의 지식 독점권에 도전해야 한다. 이는 지식노동자란 CEO에게 경영학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는 주장의 교육학적 변용이다.

이미 흐름을 통제받는 정보를 거부하고 참된 지식의 흐름, 커뮤니케이션을 갈구하는 욕망이 형성되어 있다. 이 흐름을 알팍한 처세술 비슷한 책들과 각종 문화 사기꾼들의 영터리 교양강좌들에게 맡길 것인가? 교사는 이 정보, 지식의 흐름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자신 그 흐름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 자율적인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욕구에 이 흐름을 접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중들의 욕구에 지식의 흐름을 접속시키면서 거대한 재전유나 물꼬돌리기가 가능해진다. 미래의 시민들인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정보로 주어지는 공식적 교육내용을 교실에서 모두 담론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 아니 모든 공식적 내용은 담론의 대상으로 바꾸어야 함을 경험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 만약 교사의 노동이 표준화, 기계화 된다면 세상에 어떤 노동이 인간을 위해 남을 수 있겠는가? 교사는 지금 최전방에 섰다.

2. 가장 화급한 고통에 응답하는 교사

아이들의 마음과 신체는 자본에게 가장 손쉬운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교육열은 이제 새로운 고통의 근원, 양시앵 레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모마저 눈멀고 귀 멀어 버렸다. 이런 부모마저 듣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아니 응답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다. 그리고 그 응답은 그저 구두선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집단은 이런 관점을 시민 단체적 관점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럼 전교조 완장 차고 거리 청소라도 하자는 것이냐?”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정답은 “그렇다.”다. 그

동안 소위 진보세력은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큰 일을 하시느라 거리 청소 같은 작은 선행을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왔다. 지금 소위 진보진영은 그 오만함의 천벌을 받고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비명에 응답해야 한다. 밥도 먹여야 하고 방도 치워줘야 하고 상처도 고쳐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때문이라며 비명 치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자본주의를 해치워 주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짓이며 파렴치한 짓이다.

3. 제도를 넘어선 자율적 교육실천

인간은 교육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하등 소용없는 환갑의 방송대 학생들은 인간의 배움 욕망이 물질욕 못지않음을 보여준다. 이제 배움의 욕망은 학창시절을 넘어, 학교 담장을 넘어 확장된다. 학교를 중심으로 흐르던 지식의 흐름도 이미 학교를 우회하고 있다. 그러니 교사도 학교 담장을 넘어서 저 지식의 흐름에 몸을 던져 다양한 접속점이 되어 배움에 목마른 다중들에게 지식의 물꼬를 돌려야 한다. 그게 힘들면 적어도 접속점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보사회에는 사회 전역의 다양한 영역의 투쟁들이 모두 제국의 핵심을 노리는 중요한 투쟁들이다. 그러나 이 다양한 투쟁의 영역들이 서로의 영역을 넘어 횡단적 연대를 달성할 때 비로소 제국은 휘청거릴 것이다. 핵심 비물질 노동자로서 교사는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사란 원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의 접속점으로 자신이 사용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모자란 것이다. 더군다나 탈 중심화된 오늘날 교사의 지식운동은 노동운동의 부속이 아니라 동등한, 아니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교사는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민족국가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이미 네트워크화 된 세상에서 핵심적인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해야 한다. 교사는 참교육을 그냥 실행해야 한다. 고립된 교사로서는 어려울지라도 네트워크화 된 교사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교사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실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교육부는 저절로 무력화된다. 이미 공교육은 껍질만 남았다. 하지만 사교육이라고 불리는 행위들 역시 사실상 공교육이다. 오히려 더 강화된 공교육이다. 공교육의 도구를 자율적으로 재전유한 참교육의 자율적 네트워크는 진정한 의미의 사교육이며, 공교육이 마침내 붕괴되었을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V. 참실 활동의 새로운 위상

1. 일상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실천 망5)의 필요성

대중 노동자 시대, 포드주의의 시대에는 자본도 집합적, 노동자도 집합적이었다. 집합적인 자본가의 힘은 집합적인 민족국가를 통해 구현되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은 단결이었고, 적합한 조직은 강고한 노동조합이었다. 혁명은 민족국가를 자본으로부터 탈취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고되었다. 그러나 이미 자본은 변신하였다. 오늘날 자본은 재벌조직, 기업집단 조직을 거쳐 네트워크로 진화하였다. 시중에 네트워크 경영,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제로 한 책이 수십 종이 나왔다. 자본은 거추장스러운 거대조직의 틀을 스스로 벗어버렸다. 이른바 유연하고 구조조정이다. 자본은 돈 냄새가 나는 곳에 기동력 있게 출동하여 진물을 다 빨아먹으면 삽시간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날렵한 구조로 변신하였다. 그들은 민족국가를 낡은 집단으로 만들고 나날이 강력해지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자본과 맞서기에 오늘날 노동조합 조직, 그리고 노동조합에 기반한 조직의 몸집은 너무 무겁다. 강고한 대오를 만들어서 집합적 힘으로 대결하려는 순간 공장의 기계는 추상적인 디지털 신호로 해소되어버리고, 아니면 지구 반대편으로 옮겨가 버리고 만다. 물론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공장의 의미가 변화되고 해소되며 생산수단이 디지털 부호로 바뀐 지식이 되어버린 마당에 대규모 공장을 근거로 물질적 투쟁에 의존하는 조직은 점차 낡은 틀이 될 것이다.

이는 교육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미 교육부는 입시자본, 대학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설사 교육운동 세력이 교육부의 기구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사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인이다. 지식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질적 변화까지 가능하다. 자본이 생산수단을 디지털 정보로 바꾼 것은 과거 전혀 이윤의 영역이 아니었던 곳까지 침입하여 닥치는 대로 상품으로 재조합시키는 힘을 얻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상품이 이미 디지털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한 21세기의 지식노동자는 이를 얼마든지 해체·재조합하여 상품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인간의 창조성이 참으로 발휘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되돌릴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가 말했듯이 제국은 구체적인 장소에 머물러서 우리를 착취하지 않는다. 제국은 어디에나 있고, 또한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제국은 교실에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있고, 교사의 마음속에 있다. 머무르지 않고 네트워크의 노드들 사이로 명멸하는 제국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은 보람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노드들을 다르게 조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리면 제국은 스스로 부패해 버린다. 간단히 말하면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교육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정치싸움을 벌이고, 그것에 승리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참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5) 이 리즘적 전투기계라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결국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적어도 새시대의 새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라면 이 정도는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펠릭스 가타리와 질 들뢰즈가 사용하는 용어로 굳이 풀어서 말하자면 고정되고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영역을 찾아 이합집산 재조직되는 그런 투쟁체를 말한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교사들은 바로 자율적인 참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참교육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가 참교육을 강제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결코 참교육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네트 사회의 권력은 구성권력이다. 일상적인 참교육 실천은, 그리고 그것을 네트워킹함으로써 보편화시키는 것은 그 자체 권력의 구성이며, 구제도의 해체다. 무너지는 낡은 근대 국가에게 굳이 타도의 망치를 휘두르지 말자. 오히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모습이 드러나는 새로운 체계를 그 네트를 재조합하여 건설하자.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해체와 재조합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가타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을 빌리면 ‘리좀적 전투기계’다. 리좀적 전투기계는 특정한 주제, 특정한 영역의 특정한 투쟁에 특화 되어있지 않다. 리좀적 전투기계는 시야가 모든 영역에 펼쳐져 있으며 아주 사소한 틈에서도 거대한 파열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리좀적 전투기계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을 재조직 할 수 있으며, 미시적인 영역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치열한 담론을 이끌어낸다. 주전선, 부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영역이 중요하며 모든 영역이 근본적이다. 탈중심화된 자본에 맞선 탈중심화된 투쟁의 주체가 리좀적 전투기계다.

교사는 리좀적 전투기계의 지식전사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교사는 과거 가장 권위있는 지식 담당자였으며, 비록 흔들리고는 있지만 지금도 그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끊임없이 교사의 탈속련화, 지식 흐름의 체계화의 압력이 가해오지만, 최후의 순간 그 흐름의 관리자, 매개자로서의 지위만큼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교사라는 직업의 안정성의 근원이며, 최근 교사직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본능의 자극제다.

교사는 이제 기로에 서 있다. 지식 흐름의 관리자, 매개자 지위에 만족하고 충실하다면 다른 지식노동자보다 좀 늦게 몰락할 수는 있겠으나 끝내 그 몰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그 지위를 아예 포기하고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산업노동자를 향해 달려간다면 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처럼 장렬하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식 흐름의 관리자, 매개자의 지위에서 창조적으로 진화하여 지식 흐름의 창조자, 소통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체계가 요구하는 지식흐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교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쟁점을 창출하며, 그 지식과 쟁점을 중심으로 여타의 지식노동자들이 집결할 수 있는 리좀적 전투기계를 건설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지식노동자로서 교사의 지위와 권위가 살아있다.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교사는 지식노동자들의 허브가 되어야 하며 지식을 갈구하는 다중의 욕망의 흐름에 새로운 접속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참실활동은 교육운동의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운동이 참실활동의 결과다.

2. 탈 중심화 된 교육운동과 참교육 실천의 네트워크

참교육 실천은 한 교사의 활동으로 그칠 수 없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따라 흐르며 끊임없이 재조합된다. 이는 고립된 존재가 생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참교육 실천은 연결망을 전제하며, 또한 그 결과 저절로 연결망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즉 참교육 실천은 교사들의 자율적 교육실천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이 네트워크는 중심적 사업과 부차적 사업을 가리지 않으며, 중심 영역과 주변 영역을 가리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미리 정해진 구조 속에 있지 않아야 한다.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고통과 성장에 관련된 영역이면 무엇이든 문제 삼는다. 그리고 아이들의 고통과 성장에 관련된 영역이면 아니, 가르치고 배우에 관련된 영역이면 무엇이든 접촉한다. 체계에 의한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을 거부하는 모든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의 연대, 그것이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할 참교육 실천의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활동이 바로 교육운동의 핵심으로 그 자체로 일어서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교육운동에서 참실활동은 항상 결과로 간주되었다. 항상 반복되어왔던 논리는 이렇다. “참교육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분쇄하고 새로운 제도를 쟁취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투쟁에 나서자.” 그래서 항상 교육과정에 개입하고, 교과서에 개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교육운동은 항상 중심화된 투쟁이었다. 힘을 한 곳에 결집해서 교육부와 대결해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강요하던 그 권력을 탈취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과연 타당한가? 모든 집산적 거대조직이 형해화되고, 권력이 네트워크로 분산하고 있는 시대, 전지구화와 함께 민족국가가 해체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논리가 과연 지탱할 수 있는가? 과연 ‘민중적 교육제도’를 쟁취하면 ‘참교육’을 할수 있는가? 참교육은 그렇다면 국가의 제도에 의해 지탱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참교육인가? 참교육은 단지 전달되는 교육 내용의 문제인가?

애플(Apple)은 유능한 교사는 가장 보수적인 교과서를 가지고 가장 진보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프레이리는 은행 저금식 교육을 비판하고 대화식, 문제제기식 교육을 강조할 뿐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무너지는 제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끊자. 잡무가 문제면 안하면 그만이다. 안 할 수가 없으면 대충 하면 된다. 대충하는 요령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유해 버린다면, 혹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일제히 잡무를 하지 않아버리면 잡무는 사라진다. 최근 학생들의 두발은 법과 제도를 통해 자율화되지 않았다. 그냥 사실상의 자율화를 이루어버렸다. 참교육 실천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할 것이다.

“짧은 저항, 저항보다 부정, 그리고 길고 아름다운 창조!”